

광주 아파트 경비원 근무시간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 109곳 중 63곳 휴식시간 늘려 인상분 상쇄

2곳은 절반 감원시켜…당직제 도입 등 근무환경 개선 시급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이 1시간여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 아파트 단지 109곳 경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 63곳(58%)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어야 하지만,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이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최

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킨 셈이다.

아직 입주자 대표자회의 내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20곳(18.35%)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단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경비원은 통상 24시간 맞고대로 일하고, 임금이 시급으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휴식시간을 늘리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조사에서 휴식시간이 작년에 비해 1시간이 늘어난 곳은 39곳(61.9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분 증가 10곳(16%) ▲1시간 30분 증가 9곳(14%) ▲2시간 증가 5곳(8%) 순이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휴식시간에 변화가 없었다는 곳은 26곳(24%)이었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곳은 20곳(18.35%)으로 집계됐다.

경비원 휴식시간을 늘리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세대 수로 구분하면 300세대 미만 이 43%, 300~499세대 22%, 500~999세대 17%, 1000세대 이상 12%다.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단지일수록 휴식시간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사대상 중 아파트 단지 1곳은 기존 휴식시간 중 30분을 근무시간으로 환

원하고 올 최저임금 인상분과 합해 20만 원 수준의 임금인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찬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매년 열악해지는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대신 당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단지 두 곳에서 경비원 절반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다른 아파트단지 두 곳에서는 전체 경비원 10명 중 4명, 8명 중 2명을 감원하기로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했는데 입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립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62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공모부문: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 △ 공모기간: 2월 28일 수요일까지
- △ 공모방법: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공모신청서 작성
- △ 출품규격 및 출품 작수: 20자 이내, 개인별 표어 2점 이내
- △ 시상내역
 - 대 상 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 △ 문의처: 02-733-2251/2, 한국신문협회
- ※ 공모 소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삼지연 관현악단’

민요·세계명곡 종합공연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파견하기로 한 ‘삼지연 관현악단’은 남북이 공통으로 아는 민요나 세계명곡 연주에 춤과 노래 등이 섞인 ‘종합공연’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파견하기로 한 이 ‘관현악단’은 남한에서 통용되는 ‘오케스트라’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연주자와 가수, 무용가 등을 모두 포함한 형태다. 140여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우리 측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남측에 내려오는 북한 예술단 규모로는 이번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연주곡이 선보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구체적인 공연 프로그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남북이 공통으로 아는 레퍼토리를 통해 모처럼 맞은 화합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는 곡들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접촉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통일 분위기에 맞고, 남북이 잘 아는 민요, 세계명곡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과거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 때 ‘아리랑’,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등처럼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민중적 정서를 담은 곡이 연주되기도 했다.

이들의 연주 형태는 태평소를 개량한 ‘장새남’ 등 개량 전통악기를 서양악기와 함께 편성한 것으로, 민중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특징이 있다.

이들이 어떤 공연장에서 이러한 공연을 펼치게 될지도 관심사다. 일단 정부는 서울과 강릉 등 2회 공연으로 계획 중이며, 공연장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 구성됐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정부합동지원단’ 현판식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릴레이 회담 17일 평창회담→20일 IOC 회담→군사회담

오늘 차관급 회담서 북 올림픽 참가 논의 마무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9일)과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15일)에 이어 17일에는 판문점에서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을 연다.

불과 열흘도 되지 않는 기간에 열리는 3번째 남북회담으로, 남북은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만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이달 말에는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개최된다. 여기서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의 안전한 육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고위급회담으로 2년 1개월의 단절상태를 청산한 남북이 군사당국 회담까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총 5차례의 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는 셈이다.

우선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간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방문단의 방남 경로, 체류비 부담 원칙, 개회식 공동입장 여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따로 실무접촉에서 협의가 이뤄진 예술단 파견을 제외한 모든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전남 일제강점기 유적 절반 이상 방치

29개 중 16개…여수 13개 최다

전남에 있는 일제강점기 대표 유적의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의 저자 주철희 박사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전남 지역 일제강점기 유적은 일본영사관, 목포부청 사고, 소록도, 여수 마래터널 등 29개다. 일제 유적은 주로 여수(18개), 목포(8개), 해남(2개), 고흥(1개) 등에 남아있다. 그러나 유적 관리 상태는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에 있는 일본영사관이 국가사적 289호로 지정됐고, 목포부청 서고와 마래터널은 문화재로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한센병환자 격리정책에 따라 조성된 소록도는 소록도병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목포 고하도 목화밭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남 옥매광산, 고하도 주정기지 해안동굴, 여수 자산공원 고사포진지, 거문도 불탄봉 관측소는 안내판이 설치돼 당시의 아픔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에 16개 유적은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수지역이 심각했다. 여수에 남아있는 유적 18개 중 마래터널·오포대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강제

동원 작업장도 3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 산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전남지역 강제동원 작업장 현황’을 보면 여수 42곳, 나주 37곳, 목포·순천 36곳, 보성 26곳 등 총 364곳에 달했다. 대부분 탄광과 광산 강제동원이었다. 여수와 목포는 군부대 또는 군사시설물 구축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가 많았다.

주 박사는 여수와 목포에 일제강점기 유적이 많은 것은 이들 지역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군수물자 수송의 기착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설 및 강제동원 현장과 사료에 대한 체계적 발굴·보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 물문 근대문화유산 등록, 다크 투어리즘(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 활용, 학예사 운영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 1·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회 회의실에서 ‘전남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불분 대출

(주)온천정매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강원 0622, 법정부자대출,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초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도명칭: 광주광역시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헌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찰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당중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재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담양군 청평 의창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흥면 전 3천여평 포항 산 75780㎡ 4억
- 함평읍 물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각구적합 5억

상가건물

- 고흥군 동일면 팬션 땅 7061㎡ 팬션 267㎡ 8억2천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1층 가게, 2층 투룸, 3층 안집, 은행 1억5천 생활편리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원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상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팬션 땅 1578㎡ 경관중을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보합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금 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4천
- 무안군 청계면 산 16166㎡ 공사가 5억5400 매도 2억8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원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중을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평 297 건평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 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 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 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상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 무평면 옥당리 대지 4,780㎡ 매 6억2천(물류창고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